

국힘, 2차 경선 돌입… “한덕수와 단일화”

후보들 “이재명 이길 사람은 나”
29일 발표, 과반 못넘기면 결선
한덕수 대행, 30일 사퇴 관측
5월3일 대선후보 최종 확정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의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27일 시작된 가운데, 4명의 후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일제히 밝혔다.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과 지지층의 표심이 단일화를 바라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를 한 뒤 50%씩 반영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 없이 당 대선 후보로 자동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에 진출한다.

이후 같은 방식의 경선으로 5월 3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반드시 1위 차지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지



지난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제2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선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경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켜나가겠다”며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한 대행 출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우리 당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해 “(이 후보와) 1대1로 대결하는 구도이지 않겠나. 그 사람의 경쟁력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보다 이 후보 대 한 대행, 이 후보 대 우리 후보의 1대1 대결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경선 방식처럼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당 경선 후

보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당 후보와의 1대1 조사를 통해 적합한 대선 후보를 찾자는 취지다.

또한 한 대행에게 입당을 권하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경선을 통한 단일화 방식에는 안 후보와 뜻을 같이했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며 “그게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길이라면 흔쾌히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며 “오늘 투표와 여론조사에 꼭 준비된 대통령 홍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오늘이다. 이기는 선택, 저 한동훈을 선택해 달라. 오늘 경선 투표에서 드라마를 만들어 주면 저 한동훈이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도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전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기고 싶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역동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선출하는 후보가 이재명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사퇴 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이 5월 3일이고, 공직자 사퇴 시한이 4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SKT 유심 해킹에 “재발방지책 내놔야”

韓 대행, “국민불편 해소에 전력”

더불어민주당은 27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SKT와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해킹 원인 분석으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500만명의 고객이 이용중인 SKT 유심 해킹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습 상황으로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심 무상 교체 대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유심 교체에 나선 고객들이 허탕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해킹을 당했는데 왜 소비자가 일일이 발품 팔며 대리점을 전전해야 하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

무총리는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통위, 개보위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교체 등 해당사업자의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과기정통부, 국정원 및 개보위 등 관계부처들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 달라”고 말했다.

앞서 해킹 사고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은 유심을 무상 교체해 주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접수

미신청 농어민 경영주 대상
내달중 농가당 60만원 지급

전라남도는 민생안정 차원으로 조기 지급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1일 이전 계속해 전남에 주소와 두고, 같은 날 이전부터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과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함께 거주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접수는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추가 신청한 농어민은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봄철 농번기에 활용하도록 5월 중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조기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체전 3년 연속 성공개최…스포츠도시 위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황리 폐막
생산·부가가치 2900억…경제 순환

전라남도는 27일까지 나흘간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41개 종목으로 치러졌으며 전국 17개 시·도와 일본 선수단 등 약 2만여 명이 참가해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2년간의 체전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대축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전국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7일 열린 폐회식은 하이라이트 영상과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성적 발표, 대회기 전달, 환송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전라남도는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성공개최 노고를 인정받았다.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전남의 AI, 위성농업, 첨단바이오 등 주력산업과 음식(맛), 관광(맛), 문화(정)가 어우러진 콘텐츠와 함께, 드론 라이트쇼, 멀티미디어 레이저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며 큰 호응

을 얻었다.

또 대회 기간 무안 남암중앙공원과 목포 자연사박물관 일원을 비롯한 전남 곳곳에서도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지역축제가 열려 선수단과 도민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로써 전라남도는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 2024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에 이어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마무리하며 3년간 약 8만여 선수단과 대규모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실제로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축전을 통해 지역 내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325억원, 취업유발효과 약 238명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3개년 대회로 분석 범위를 넓히면 총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92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2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체전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순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또 3년간 총 1471억원을 투입해 목포종합경기장, 목포반다비체육센터, 나주 스쿼시전용경기장, 나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론볼경기장, 광양성황스포츠헤드 수영장 등 5개 경기장을 신축하고,

656억원을 들여 77개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등 지역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들 시설은 대회 이후에도 도민 생활체육 및 전지훈련 유치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실제로 2023~2024년 전지훈련 방문 인원은 84만명, 경제효과는 80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대회의 성공을 이끈 6600여 자원봉사자는 현장에서의 헌신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회 품격을 높인 숨은 주역으로, 앞으로 각종 메가이벤트를 비롯해 지역을 이끌 지속적인 인적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5 남도국제메시식산업박람회,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향후 국제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0만 도민과 함께 만들어낸 체전 3연속 성공은 전남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와 관광·문화를 비롯해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전남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현재 탄핵 결정문’ 애니메이션 제작

AI기술 활용 주요 쟁점사항 정리
‘민주시민교육’ 유튜브 채널 개설

광주광역시 법원 행정소송 제44호(2024. 4. 1. 선고)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어려운 법률 내용을 시각화해 시민 이해를 높이고, 헌정사의 중요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판결문 낭독과 AI 기술을 활용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애니메이션에는 △비상계엄 선포 위법

성 △국회 내 계엄군·경찰 투입 논란 △선관위 압수수색 위헌성 여부 △탄핵소추안 절차적 흠결과 현재의 판단 근거 등을 요약해 담았다.

광주시는 앞서 ‘계엄과 헌법’을 주제로 한 민주시민교육 영상시리즈를 솜품으로 제작했다. 1편은 선진국의 헌법 수호 제도를 소개하고, 2편은 5·17 계엄과 2024년 12·3계엄의 유사성을 비교·분석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성아 기자